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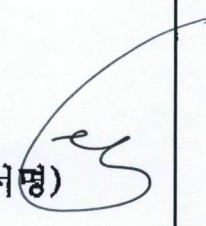
푸르메병원 건립위원 취임승낙서

환자의 부름에 늘 응답하고, 가족이 마음 놓고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재활병원을 만드
는 취지에 공감하며, 푸르메병원을 세우는데 뜻과
정성을 함께 하겠습니다.

2007년 2 월 28 일

(소속) 한국애병 재단

(성명) 김성수

(서명) 

재단법인 푸르메 김성수 이사장 귀하

3월 9일까지 팩스나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박영숙 이사장님. 푸르메병원의 건립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푸르메재단의 활동을 지켜봐주시고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나 뇌졸중으로 하루아침에 장애환자가 되는 사람들이 매년 30만 명씩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을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 있습니다.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큰 병원들도 이들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르메재단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 재활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 전원마을 같은 병원, 가족이 마음 놓고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아름다운 병원을 짓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이제 본격적으로 병원 건립을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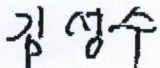
이를 위해 사회, 문화, 의료, 경제계 등 분야별로 20분씩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200분을 건립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푸르메병원 건립에 뜻을 모아주시고 병원을 운영하는 데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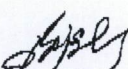
푸르메재단에서 준비하는 재활전문병원의 건립을 위해 건립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푸르메병원의 건립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장애환자와 그 가족, 뜻을 함께하는 시민과 푸르메재단 후원회원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7년 2월 26일

푸르메재단 이사장 김 성 수 

푸르메재단 대 표 강 지 원 

푸르메재단 현황

설립	2004년 8월 17일 발기인대회 2005년 3월 9일 보건복지부 비영리재단 설립허가	
설립취지	전체인구의 10%에 해당하는 470만 명의 장애인 중 30%인 약 140만 명은 입원치료 및 지속적인 재활훈련이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재활 병상의 수는 4천 개에 불과한 실정.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매년 30만 명씩 늘어나는 중도장애인들을 위한 민간차원의 재활전문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함.	
목표	1) 2009년까지 1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수도권 인근에 50병상 규모의 전원마을 형태의 재활전문병원 건립이 1차적인 목표(2012년 330억원 150병상 완성) 2) 환자의 간병을 가족과 유료 간병인이 도맡아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가 24시간 환자를 책임지고 보살피는 선진국형 시스템 3) 장애환자가 생명의지와 재활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전원마을 형태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병원주변환경 4) 장애의 고통을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나눌 수 있도록 지역주민, 종교단체,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재단 이사회	이사장	김성수(성공회대학교 총장/ 대한성공회 주교)
	공동대표	강지원(어린이청소년포럼 대표/ 변호사), 김용해(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 예수회 신부), 김성구(샘터사 대표)
	이 사	김학준(동아일보 사장),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원택스님(조계종 중앙위원장), 이정식(CBS 사장), 안국경(SBS 사장), 이상기(한국기자협회장), 조인숙(다리건축 대표), 백경학(상임이사)
	감 사	김문규(신원회계법인 대표)
연 혁 (코페이지에 이어짐)	2004. 8. 17	푸르메재단 창립 발기인 대회
	2005. 3. 9	보건복지부 비영리재단 설립허가
	2005. 5. 11.	서울시장 면담 김성수 이사장, 강지원 공동대표를 비롯한 푸르메재단 이사진과 가수 강원래 씨, 이지선씨 등 푸르메재단 홍보대사들이 이명박 서울시장을 방문하여 푸르메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 형태의 민간 재활전문병원 설립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면담을 가짐.

연 혁 (뒷페이지에 이어짐)	2005. 6. 1.	푸르메재단 홍보인권대사 위촉식 및 기자간담회 가수 강원래씨와 이지선씨가 재활전문병원의 건립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강지원 공동대표로부터 위촉장을 받음.
	2005.9.5 ~ 9.10	동아일보-푸르메재단 공동주최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갤러리) 장애인 사진전시회 <세상을 만나는 또다른 시선> 개최
	2005.10.14	조선일보-CBS-푸르메재단 공동주최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장애인·비장애인 합동 사랑의 콘서트 <희망으로 한걸음> 개최
	2005.11.24	박완서, 김혜자, 김근태, 강지원, 박원순, 강원래 등 각계 인사의 에세이(단행본) <사는 게 맛있다> 발간
	2005.11.29	푸르메재단 후원의 밤 개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2005.12.7	동아일보·사랑의 연탄나눔운동과 공동으로 “장애인과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연탄나눔운동)” 시작 푸르메재단이 동아일보와 사랑의 연탄나눔운동과 함께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펼치는 캠페인으로, 이날 연탄 전달 행사에는 김성수 푸르메재단 이사장(성공회대 총장)을 비롯한 푸르메재단 직원 및 장애인단체, 중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해 영등포구 문래동의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2005.12.18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연탄 전달 푸르메재단 대표인 강지원 변호사와 삼성 SDS 푸르메동호회, 이우학교 학생들이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연탄 2천장을 전달함.
	2005.12.18	푸르메 재활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가수 김창원의 자선 맥주 콘서트 개최 (옥toberfest 강남점)
	2005.12.22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책 읽어주기 행사 푸르메재단 김성수 이사장(성공회대 총장)과 고정욱 작가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책을 읽어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푸르메재단이 출간한 에세이집 <사는 게 맛있다>를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다.
	2005.12.30	서울맹학교 장학금 전달 푸르메재단이 삼성 SERI CEO 조찬모임에서 모금한 성금 1천만 원을 국립 서울맹학교 학생 중 형편이 어려운 1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였다.
	2006.1.6	국민은행과 푸르메재단 공동으로 사랑의 연탄 전달 강지원 행장을 비롯한 국민은행 임직원과 직원 300여 명과 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공동대표), 김성구 샘터사 대표(푸르메재단 공동대표)를 비롯한 푸르메재단이 서울시내 25개 지역 106가구에 총 3만1800장의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가졌다.
	2006.3.9~10	아름다운가게 서초점- 푸르메재단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개최 강지원 푸르메재단 대표와 이해동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아름다운가게 서초점에서 푸르메재단을 위한 바자회를 열고 “장애어린이 천사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협약을 체결하였다.

연혁	2006.4.17	장애인의 날 기념 JSA 방문행사 국립서울농학교와 절단장애인협회 소속 장애인 50여 명과 함께 JSA를 방문하고 통일염원편지를 쓰는 행사를 가졌다.
	2006. 5. 4.	푸르메재단-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 장애인 스포츠 사진전 "우리함께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서의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사진들을 전시하였다. (사진작가 노용현)
	2006.10. 3.	테마콘서트 <포기하지 말아요> 푸르메재단, 조선일보, CBS 공동개최 가수 김장훈, 동물원, 안치환 등과 휠체어 댄스의 김용우 등이 장애인 재활을 외치는 콘서트를 열었다.
	2006.11. 9.	김창완·전제덕의 자선콘서트(후원의 밤)개최 재활전문병원 건립기금 모금 자선콘서트를 절동 성공회 성당에서 열었다.

東亞日報

2006년 6월 7일



영국서 교통사고→8년만에 받은 보상금 10억 기부 황혜경씨

“고통과 원망 묻고… 이젠 다른 장애인 도와야죠”

“장애인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된 재활치료를 받아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과 장애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풀이죠.”

한편 전 영국에서 당한 보훈사로
퍼블리싱으로 받은 10여 권을 남
편 해방포(43) 씨가 상임이사로 있
는 푸른나무재단에 기부한 출판물(41)
책은 자살의 신과 숲의 도시가 있는
정해진 자살정신병원을 짓는 대신
여기 해방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경운궁 주조실장은
사무실에서 만난 윤씨는 포퓰리즘
으로 관공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밝아 보였다.

사고 풍격으로 맑은 조를 대하는
정애가 남아 있었지만 한 바디 한 바
다가 또렷했고 언터짐 내내 머소를
열지 않았다.

공 부는 인문사에 두. 단 책 세권

66

열악한 재빨시설에 눈물
쏟-호수 있는 병원 꿈꿔요

22

한편 1998년 독일로 해외양수를 간 뒤 1998년 6월 영국 스코틀랜드로 자택의 여행을 떠나다가 글래스고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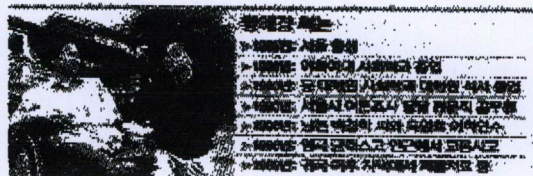
무엇이든 지나치게 많이 먹은 게
유해하다 볼 일수만 정신을 잃고 권유
를 받은 운전자의 처지에 도달할 것

그가 8년간의 수감 중에 자살한 자
형자 후 보형사로부터 1972년 3월 30일
판례(20)의 취지를 받았고 소수의
정당 제의한 보형판결 재판인 30년
판례(20)의 취지를 제의에 기술했다.
다. 형량 결정과도 관련 있는 구형에
관하여 우선 자판결을 보형판결 판

원도 자선에 재단에 기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받은 거액을 재단
에 선뜻 기부하기까지 마음의 갈등
을 앓았을까.

“단 원년도 내 들어라고 야기 하여
있어요. 어차피 가짜 차장이 보람에
안 들었으면 못 보는 돈이 많아요. 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 쓰려고 하는
남이 주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1988년 말 귀국해 재향발전
에서 치료받으면서 국내 참의원

[illegible]

재활시설에 입소한 연소는 박제리게
나간다.

“매년 30만~40만 정도가 노동당으로
결과 표결하고 있으므로 유권자 중에는
각종 노골적인 150만표 이상의 지
원성원은 전국에 불과 4개뿐이로 보
고 작은 지역정당을 다 합쳐서
400만 정도밖에 수할 수 없어요.”

제출서류에 압축화하면 2,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편 기존, 법률에 압축한다 해도 3개월 이상대응이 이뤄질

“은둔 권크레트 백화인” 백화에서
매일의 인권을 찾을 수도 없고 하루
에 불과 [시간] 정도의 물리치로와
작업치로가 재물치로의 전부”라는
개관 피의 자책이다.

“장애인은 세상을 다루는 위대한자가 아니요, 신과 더불어 연행이 필요합니다. 통제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정기적인 재활 프로그램들을 짜고 본연의 자아 표현적으로 변화시켜 줍시다.”

한 세가 다른 장애인들의 재가복지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갖기
까지 걸린 것은 시간이 필요했다. 한
세는 사고 후 두 달간 홀수상태에 있
다가 깨어난 뒤 몸과 다리가 사려난
사실을 알고 눈앞에 좌절했다.

가려져서 증오했고 외국으로 자취
을 떠난 남편도 원망스러웠다. 결
혼은 연습이 너무 힘들어 '차라리 사지
가 마쳐줬으면 어떤 운명을 안 해도
모른다...' 하는 생각까지 했다.

가려와 숨 보려사와 같이 보살님
 불다리가도 한 바퀴 돌리게 했다. 보
 살사는 배운 한 세의 청산·유체 상
 태 집단시를 요구했다. "왜 다사 명
 함에 알리지 않는지, 왜 휘하하지
 않는지"를 따지 않았다.

출 세는 북한에서 제물치료를 받기
아래쪽 국내 상황과 동등 장에있다 첫
없이 아래쪽 한곳을 선택했다가 보면
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KOECD) 회원

42

매년 수십만명 장애 발생
그들 돌봐야 건강한 사회



국민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실을 말할 수 없다'며 버렸다.

재향과 소손이되는 가나인 태극을
가나인 황씨는 재와 자손에게 찾아
온 고봉과 삼행술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기로 한다.

대안을 바꾸자. 핑계만 있던 가계
자도 용서할 수 있었다. 자금을 보충
금이 지평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
을 때 남편 백 씨와 함께 근처 공영
을 찾았다. 백 씨는 "여러번은 큰 배
운 때문에 우리 가족의 뿌리가 흔들
려도 영동지방에 아직 모두 자식
때기"라고 말했다.

사건도 밟아지면 도와 준 사형도
판았다. 사고 직후 뉴욕에서 공작
바람 영국인 유학생이 공작스피치
말과도 강변을 도왔다. 소송을 맡은
법무장관 겸청의 안음서, 장우현 편
호사는 "대 좋은 양에 쓰라"며 수심
모를 할 수도 받지 않았다.

황씨는 "유해를 복에 새기고 미
음을 등에 새기고"를 숙달의 요점을
정리한 책이었다"고 말했다.

출판사: 기와 www.girwa.com

푸르메재단 기사자료집



2005년 7월 21일

■ 기 고 ■

장애환자 전문병원을 세우자

몇 년 전 독일 사회에서 활약한 신문 기사 하나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은퇴하면서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고 회사는 30대 중국인 직원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그 중국인 직원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었다. 사장은 "첫째 아들은 5년 안에 회사를 맡아먹을 것이고, 둘째는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이지만, 이 직원은 회사를 못 배 성장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당신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언팔에 볼우아웃들이 성금을 건네던 대기업 CEO들이 이제는 수백 현장에서 발방을 올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독거(獨居) 노인을 위해 연탄을 배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10대 기업의 기부금도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기업체 홍보 차원에서 시작된 봉사활동이 간부와 산업사원들이 한데 어울려 방책질을 하고 낙후된 지역을 찾아가는 주요 사업으로 발전한 것이다. 삼성화재는 매년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을 전달하고, KT는 청각장애인의 소리 찾아주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사아나눔공은 승객들이 여행하고 남은 동전 25억원을 모아서 유니세프에 기부했다. 재활전문병원 건립이 목표인 푸르메재단이 설립되자 삼성SDS 직원들이 후원을 결성해 감동을 주더니 최근에는 장애인 사진전에 두 기업이 후원해 주



환자 140만에 병상 400
정부·기업 관심 가져야

金成洙 성공회대 총장-푸르메재단 이사장

원해 "정밀 기부문화가 변모하고 있구나" 하고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기업과 개인이 사회공헌 사업과 후원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정치적 민주화'와 '내부시장'이 화두였다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나눔'이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가 됐다. 어름다움재단 박원순 변호사의 말대로 성공으로 이끄는 습관인 나눔에 어느덧 우리 사회에 뿌라내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장애인들이다. 가난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자 수가 국내에 무려 140만명을 넘는다. 푸르메재단 일을 하면서 결핍할 때가 많다. 교통사고와 뇌졸중 등으로 중증장애를 얻는 사람이 매년 30만명씩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

이 전국적으로 400개에 불과하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 시간에도 수천명의 장애인자와 가족들이 병상을 찾아 유행처럼 전국을 병원을 떠돌고 있다.

왜 이럴까. 그 이유는 선진국인 장애인이라 살다가 잃는 장애까지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서주길 바란다. 외국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재활병원과 장기요양센터를 세운 뒤 전문기와 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활병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만 제공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사회공헌 기업과 시민도 뜻을 모은다면 100병상 정도의 재활전문병원을 매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재활병원건립운동을 펼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일이다. 우리 모두 나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전국 아달 가도 장애인전문 병원을 찾아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퇴임 후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처럼 집자아주기운동을 이끌고 영부인도 장애인 학교에서 어린아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행복한 뉴스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외부 필자와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박수 받는 기부' 늘었으면

세계 최고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 280억 달러(약 26조 원)를 기부해 찬사를 받더니 그의 친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아예 뒤집제라 370억 달러(약 35조 원)를 자선기금으로 내놓았다. 평생 모은 재산의 85%로, 올해 서울시 예산(15조 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부자라고 돈이 아깝지 않더라. 버핏 회장은 3000만 원짜리 집에서 5년 된 중고차를 타며 점심 값과 이발비로 2만 원 이상을 쓰지 않는 자랑고비다. 기부한 곳도 자기 재단이 아니라 게이츠 부부의 재단이다. 그는 15년 넘게 게이츠 회장을 지켜보면서 그의 진심성에 감동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버핏 회장의 결단에 동감한 미국 부자들이 잇달아 기부를 준비하고 있다니 기부도 '전염성'이 강한가 보다.

이런 기부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사회적 물의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산을 떠려 없이 내놓고 박수를 받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이 점에서 미국 부자는 돈의 가치를 아는 부자들.

몇 년 전 독일에서도 자부가 화제가 됐다. 건실한 중소기업을 80년 동안 이끌어 온 노사장이 은퇴하면서 지역사회에 재산을 기부하고 몸이 불편한 중국인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그는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들이 둘이지만 큰아들은 회사를 맡아먹을 것이요, 둘째는 능력이

나와 비슷하다. 중국인 직원은 회사를 크게 성장시킬 것으로 확신했다"며 "당신이라면 누구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다. 그 기사를 다룬 한 독일 신문은 "당신은 못한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 주겠는가"라는 제목을 달았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삼성과 현대 자동차의 기부가 이어졌다. 둘 다 자식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물려주려다 물의를 일으킨 경우다. 이들 그들의 총수가 겪은 고통을 이 땅에 사는 장애인자들을 위해 승화시킬 수는 없을까. 이번 기회에 박수 받으며 기부하는 전통을 세우자. 부자가 존경받는 풍토 말이다.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죽은 후에도 부자인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했다. 미국 부자와 한국 부자의 차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박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연료사 기자로 1986년 해외연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양어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후 장애인 재활을 위한 푸르메재단에서 일하다 최근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을 받아 장애인 1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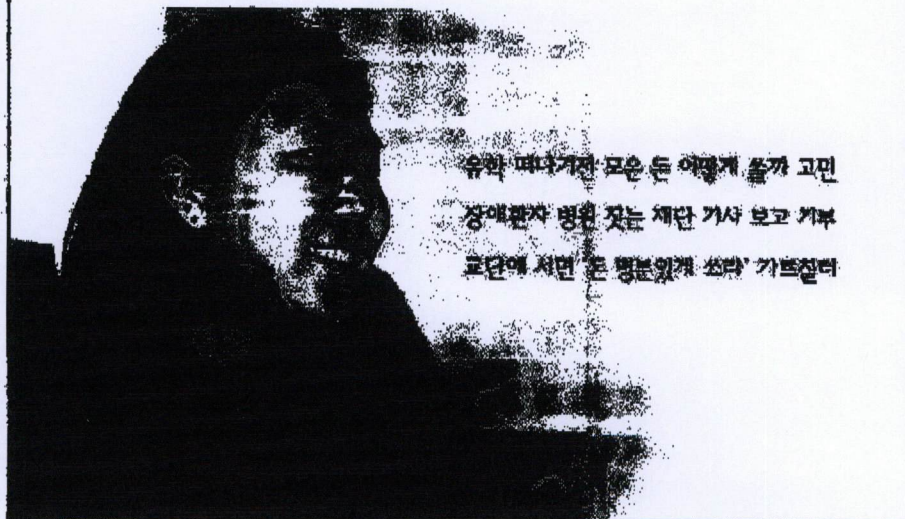
이 사관

‘푸르메재단’에 1천만원 기부한 이혜아씨

“고생해 번 돈 꼭 필요한 곳에 가야죠”

2011 年 12 月 25 日 星期五 15:50:00
www.prima.org.cn 中国首家专业门户网站
地址：北京市朝阳区东三环北路 2 号
邮编：100020 电话：010-65015111
传真：010-65015112 电子邮箱：info@prima.org.cn

1. 凡在本行開辦之各項業務，均應遵守本行所訂之各項規章及
 2. 凡在本行開辦之各項業務，均應遵守本行所訂之各項規章及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이성기 기자 am770@naver.com

유학 떠나기전 모은 돈 어떻게 쓸까 고민
장애환자 병원 짓는 재단 기사 보고 거부
교단에 서면 '도행불위'에 실패' 걱정스러